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급증세

전북지역 2016년 65세 이상 인구가 18.9%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40년에는 37.5%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 지속,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 2030년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부양 할 것으로 전망돼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광주전남지역 고령자의 삶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북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보다 12만7,000명 증가한 34만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65세

2040년엔 37.5%까지 차지 전망 저출산 지속·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구성비를 3위를 차지했다.

또 2016년 전북 65세 이상 여자 100명당 남자는 66.4명이었지만 2040년에는 78.8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2016년 현재 전국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6%를 차지했지만 전북은 전체 가구의 12.7%를 차지하면서 2035년에는 2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임실군(31.5%)이 가장 높았고 진안군(31.0%), 순창군(30.4%), 무주군(29.5%), 고창군(29.4%)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전북지역 가구주 중 64.3%(전국 72.6%)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2013년에 비해 7.7%포인트 떨어졌다. 또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

답률은 35.7%로 2년전 28.0% 대비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7.5%), 예금적금(19.2%), 사적연금(9.4%), 부동산 운용(6.1%)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20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204개소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2.2%, 35.1%가 증가했다.

전북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6,660개소로 93.6%를 차지했고 이 중 경로당이 6,567개소로 98.6%를 차지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한지제작 배포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가 한지로 제작돼 배포된다.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주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의 사회교과서(지역교과서) 30여권을 한지로 시범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교과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 지역을 소개하는 교과서로 전주교육지원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센터는 6일 오전 9시 전주중앙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지 관련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한지제작 배포 행사'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한지 제작으로 초등학교생들에게 한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관련 콘텐츠로서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추석을 맞아 정을 나뉘요

있다.

2016 추석맞이 사랑나눔 알뜰직거래 장터가 5일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 개장한 가운데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들이 직거래장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편의점 종업원 폭행 30대 입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5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21)씨의 빵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편의점 진열대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종업원 B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고,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상태 일제점검

전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및 발급기 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5일부터 7일까지 전주시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

진구청, 각 동 주민센터 외에도 민원 수요 및 지역실정을 감안해 총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보안상태 및 유지보수 현황, 시스템 작동 및 관리상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체 계구축, 소모품 관리상황, 청결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창구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것보다 대기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청구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지난해보다 이용률이 10% 증가하는 등 이용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각종 민원서류를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말 및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시민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 담은 사진 접수

30일까지 SNS 통해

전주시가 전주 시민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접수한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에 사용할 '전주시민 100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 사진'을 오는 30일까지 전주 시청 공식 SNS((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onju.kr>)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진뿐 아니라 친구와 연인·가족 등 단체사진도 출품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전주 시청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0인의 전주시민 얼굴 사진은 오는 10월 13일

부터 1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개최되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폐막식 퍼포먼스에 대형 걸개그림으로 사용된다.

또한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기록된 USB, 모바일 쿠폰 등이 증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지역의 미래, 지역화'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에는 1988년 노벨상과 권위를 같이 하는 바르셀로나를 수상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대표로 있는 세계적인 지역화 운동단체인 Local Futures(국제생태문화협회) 및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 글로벌 경제로 인한 문제점을 소개, 글로벌 경제로 인한 문제점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지역 내 선순환 구조에서 찾는 뜻 깊은 시간으로 꾸며진다. /김영재 기자

전통시장, 더욱 풍성해진다

전주 모래내·남부시장 등 추석 맞아 할인행사 진행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와 비교해 값도 싸고 점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각종 할인행사와 문화행사로 더욱 풍성해진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주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에 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모래내시장 상인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살이 공연을 하루 4시간씩 진행한다. 또, 같은 기간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선착순 사은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모래내시장 상인회는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에서 쌀을 전달하고, 오는 10일에는 시장과 MOU를 체결한 기관 및 업체 가족을 초청하는 잔치도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중앙시장 상인회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물품 이벤트를 통해 생활용품들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남부시장 상인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건어물과 버섯, 과일, 잡곡 등 설 선물세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추석명절 선물세트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시장 글로벌 명품 육식사업단은 지난 1일부터 4일간 남부시장 일원에서 영화 상영과 음식 관련 토크쇼, 외국인 대상 시장 체험 문화프로그램 등 'Falling In Jeonju x 남부시장'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추석 명절 고객편의를 위해 남부시장 천변주차장과 중앙상가 주차장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중앙시장 주차장은 10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무료로 개방되며,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시간 이내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추석을 맞아 장보기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앞장서는 등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부서 공무원들과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5일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 중앙상가에서 실시했다. 또, 6일에는 남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